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 하단 단체 참조

문 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희망본부 팀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사무국장

시행일 : 2015. 5. 25.(월)

제 목 : <보도자료> 홈플러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등 제출 취재요청 (총 2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2015년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민원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오는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등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 판매 등에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유출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기업이 소비자를 속여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더 이상 홈플러스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본적인 고객과의 계약조건마저 지키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한 의견 역시 함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간단한 기자회견담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